

광주시·호남대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본격 가동

한·중 우호교류 더 활발해진다

‘슈퍼 차이나시대’를 맞아 광주시의 대 중국 교류협력 및 우호 거점이 될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中國友好中點)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호남대는 최근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호남대 정보문화센터 1층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이하 공자학원, 원장 이정식)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의 현판 제막식과 함께 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송원초등학교 중국어반의 합창과 중국전통춤, 무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또 이어진 만찬에서는 조리과학과 은동(중국인) 교환교수가 중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이에 앞서 운영현 광주시장과 서강석 호남대 총장은 지난 1월 30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남대 공자학원에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공자아카데미에 개소

콜센터·민원실 등 운영

을 통해 탄탄한 중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호남대 공자학원이 운영하게 될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는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교류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호남대 공자학원 1층에 들어선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는 콜센터 및 상담실, 도서관, 자료실, 쉬터 카페, 다목적 홀 등과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할 행정실 등을 갖추고 있어 광주거주 중국인들의 민원실 겸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2006년 12월 중국교육부와 공동설립된 호남대 공자학원은 호남지역의 중국어 문화 학습 및 한·중 문화 교류의 중심거점으로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한중 우호교류의 메카로 평가 받고 있다.

호남대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로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 받아 중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문화 학술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중간의 문화 및 교육 관련 포럼,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 중국 요리, 차도 체험 및 각종 서화, 서예,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과 중국 후난성교육청, 서안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과 후난성 공안청, ‘천년학부’로 불리는 악록서원과 장성 필암서원 간 자매결연체결을 비롯해 광주 송원초와 후난민족직업대 부속초, 광주염주초와 제남사대부속초, 전남중과 김림성 급수시 제18중 등 중국 전역의 기관단체, 학교 등과의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중국 속에 남아있는 우리 역사 찾기’ 프로그램을 4년 연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CEO연수, 변검술사 초청 순화공연 등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중교류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직원들이 광주에 사는 중국인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장애·비장애 학생 하나되는 ‘과학축제 한마당’

도교육청, 17~19일 사흘간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여수서 개최... 전국 7만명 참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과학축제가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19일 사흘간 여수 엑스포 일원에서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한 초대, 과학으로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전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 등 7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규모 행사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안해 교육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장애인의 날(4월20일)과 과학의 날(4월21일)을 맞아 특수교육과 과학체험 활동을 융합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24개의 단체가 참여해 15개 주제관과 200개의 체험 부스, 2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75개의 장애 및 특수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100개의 과학탐구 체험 프로그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어울림축전에 앞서 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램 등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사흘간 상설 운영된다.

대부분의 부스는 학생과 교사, 특수·과학교과연구모임 등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진행요원(연인원 기준) 2000명과 학생도 1800명이 무보수로 행사를 지원한다.

또 특수학교인 특수학교와 목포인성학교, 나주이화학교 학생들의 난타 및 댄스, 합주공연과 여수 소호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사물놀

이, 로봇 댄스, 진동카 경연대회 등이 선보인다.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경연도 펼쳐진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 축전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전국 규모 첫 행사”라며 “많은 이들이 어울려 장애와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과학을 통해 꿈을 키우며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린이 영어 영재교육프로그램 설명회

FTK,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신개념 어린이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가 오는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현재 52개국, 250개 도시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FTK(FasTracKids)는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에서 초등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에서부터 미국 중학교 교과 과정까지 12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방대한 콘텐츠는 디지털화된 프로그

램이어서 전자질판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교육학자들과 주요 언론들이 FTK교육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FTK 본사는 미국 덴버에 있으며, FTK의 한국내 모든 권리는 (주)맥스교육이 갖고 있습니다. 맥스교육은 지난해부터 전국 프랜차이즈망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 학습효과를 배가시키는 교재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대 부설 초등

‘토요 수업나눔 행사’

교사 동아리 ‘거꾸로 교실’ 주관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교장 최영순)가 지난 11일 호남지역 교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교사동아리인 ‘거꾸로 교실’이 주관해 ▲2학년 통합교과 ▲5학년 미술과 ▲6학년 과학과 수업을 했다.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을 먼저 동영상으로 제시한 뒤 문제해결·심화활동 등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 방법’을 적용했다. 광주부설초는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배움의 공동체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 수업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9평 20층 중 10층, 양동 하천방향 원룸형, 내부 깨끗 현, 보5백에 월 50만원 임대 중 대출 3000만원 가능 매매가 7200만원(일시불 조정가)
- 17평 20층 중 10층,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울수리, 원룸형, 즉시 입주 가능 대출 2000만원 안고 매매가 - 52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